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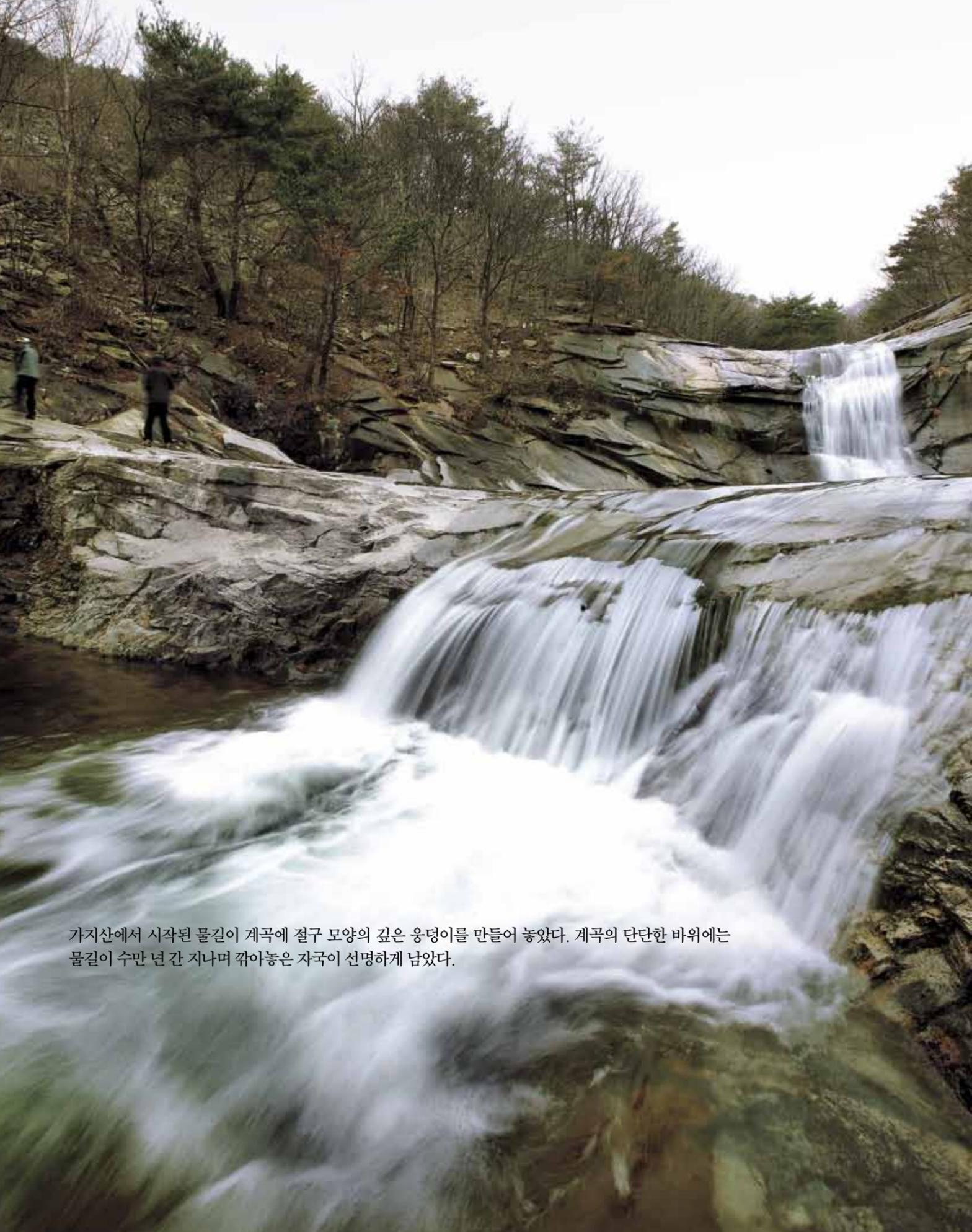
密陽



밀양 비밀스런 내륙의 속살

도로와 물길이 어깨동무하고 달린다. 자동차 바퀴가 구르는 곳마다 물길이 따라나선다. 바다 한 뼘 보이지 않는 영남의 깊은 내륙, 밀양에는 물길과 산봉우리, 들판이 만들어낸 싱그러움과 상쾌함이 넘쳐흘렀다. 봄비가 대지를 촉촉하게 적시던 날, 그곳으로 발걸음을 내디뎠다.

사진 이진욱 기자 · 글 임동근 기자



가지산에서 시작된 물길이 계곡에 절구 모양의 깊은 웅덩이를 만들어 놓았다. 계곡의 단단한 바위에는 물길이 수만 년 간 지나며 깎아놓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다.



부처의 설법에 감화된 동해의 물고기와 용이 변한 것이라는 만어사의 갈색 바위들은 돌로 두드리면 쇳소리와 옥소리를 낸다.

고즈넉한 풍경과 영화가 된 소도시의 정취

경남 밀양을 대표하는 관광지인 호박소, 위양못, 밀양댐은 모두 물을 끼고 있다. 화사한 봄날, 겨우내 닫혀 있던 산과 들판의 숨구멍으로 침투한 물길은 맑고 청아한 풍경을 만들어냈다.

영화 '밀양(Secret Sunshine)'의 이창동 감독은 "소도시의 정취 미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밀양(密陽)을 촬영지로 선택했다고 한다. 이 감독의 말처럼 밀양은 조금은 낙후돼 보이는 인구 11만 명의 작은 지방 도시이다. 부산과 울산, 김해 같은 대도시가 지척에 있어 더욱 작아 보이는지 모른다. 작은 규모 때문인지, 지레짐작 때문인지 몰라도 2010년 봄날의 첫 여행지인 미지의 그곳을 향해 가며 '과연 무엇이 있을까?'란 의문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가랑비가 대지를 어루만지던 이른 봄날, 밀양의 들판은 차가운 갈색 겨울빛에서 싱그러운 초록의 봄빛으로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화강암이 역겹의 세월 동안 계곡물에 씻겨 소(沼)를 이룬 호박소로 향하는 산길에서도 경쾌한 물소리가 따스한 봄이 지척임을 알려주고 있었다.

신비로움 숨겨진 계곡과 사찰

호박소는 '영남알프스'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인 가지산(1천241m)에서 시작



1 연인 한 쌍이 밀양댐의 경치를 감상하고 있다.
2 양양지는 신라시대의 저수지로 주변으로 둘러선 아름드리 버드나무들과 제방의 정자가 평온한 아름다움을 전하는 곳이다. 3 영화 '똥개'가 촬영됐던 백송터널은 자동차 한 대가 겨우 지날 정도로 폭이 좁다.

된 물길에 계곡을 따라 흘러내리다 높이 10여m의 절벽을 뛰어내리며 쾌인 못으로 방앗간에서 사용하는 절구의 일종인 호박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 쏟아져 내리는 폭포의 하얀 물줄기와 연두색과 갈색, 검정, 회색으로 얼룩진 바위가 오색빛깔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 지난가을 떨어져 내려 추운 겨울을 보낸 낙엽들은 하나씩 들썩 계곡을 따라 떠내려간다. 봄나들이에 나선 관광객들은 호박소에 멈춰 서 기념사진을 찍거나 물소리에 귀 기울이며 머물다 떠나곤 한다. 호박소 인근에는 밀양의 3대 신비 중 하나로 꼽히는 '얼음골'이 위치한다. 이곳은 3월 중순부터 얼음이 얼기 시작해 삼복더위에 가장 많은 얼음이 생기고,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처서(處暑) 무렵부터는 얼음이 녹는 신비로운 이상기온 지대이다. 3월 중순 무렵 기온이 오르기 시작한 얼음골에는 벌써 손바닥만 한 고드름들이 바위 사이사이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삼랑진읍 만어산 자락의 만어사에 가면 또 다른 신비를 목격할 수 있다. 한적한 산길을 굽이돌아 닿은 만어사 앞으로는 수많은 갈색 바위들이 하늘에서 쏟아진 듯 자리하고 있다. 가락국 수로왕 시절 옥지(玉池)라는 연못에서 사악한 독룡 한 마리와 다섯 나찰녀(악귀)가 온갖 행패를 일삼자 수로왕이 부처님께 설법을 청했는데, 이때 동해의 수많은 고기와 용들이 불법의 감화를 받아 이 산중으로 모여들어 바위가 되었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바위 중에는 돌로 두드리면 경쾌한 쇳소리나 옥소리가 나는 것들도 있어 관광객들은 돌밭을 거닐며 바위를 두드리며 흥을 돋운다. 한편 미륵전(彌勒殿)에는 천장까지 닿을 듯한 큰 바위가 모셔져 있다. 이 바위도 두드리면 청아한 소리를 내는데, 적당한 거리에서 바위 정면을 보면 부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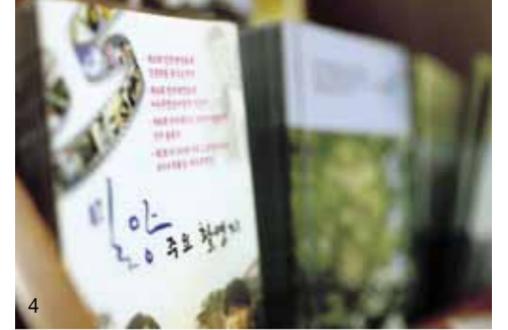
영화 속 풍경이 된 밀양 도심

한적한 드라이브를 즐기고 싶다면 밀양댐으로 향한다. 농촌 체험마을인 '평리늬 색체험마을'을 지나 구불거리며 이어지는 도로를 따라가면 물을 가둔 댐이 나타나고, 댐 뒤쪽으로 초록빛 산지에 둘러싸인 거대한 호수가 시야에 들어온다. 댐 전망대에서 풍경을 감상한 후 도로를 따라가면 시원스런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밀양 북서부 북북면 위양리에 위치한 신라시대 저수지인 양양지(陽良池, 위양 못)도 꼭 가봐야 할 곳이다. 저수지 주변으로 아름드리 버드나무들이 초록빛 줄기를 길게 늘어뜨리고, 독의 정자 주변으로는 커다란 나무들이 자리해 고즈넉한 아름다움을 전한다.

한편 밀양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는 '전도연 거리'가 있다. 이창동 감독의 영화 '밀양'에서 여주인공으로 출연한 전도연이 제60회 칸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이후 촬영지였던 곳을 관광 명소화한 것이다.

가곡동 준피아노학원과 밀양남부교회, 삼문동사무소와 일마레, 내이동 MS노래방, 내이동 청오리식당, 밀양역 광장, 무안면 갈대밭, 그리고 영남루 등 촬영지마다 영화 '밀양'의 촬영지 안내판이 서 있고, 월연정 아래의 '백송터널'은 영화 '똥개'가 촬영돼 밀양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영화 속에 들어온 듯한 느낌이 든다.

특히 준피아노학원은 밀양시가 영화 촬영 세트장으로 임대해 관광객들을 맞고 있는 곳이다. 이곳은 영화 '밀양'의 주인공 이신애(전도연)가 학원을 운영하며 생활한 주된 공간으로, 영화의 다양한 장면을 담은 사진들이 전시돼 있고, 당시 전도연과 아들 준이가 입었던 의상이 걸려 있다.



4, 5, 6 가곡동 준피아노학원은 영화 '밀양'에서 주인공 이신애(전도연)가 주로 생활했던 곳으로 촬영 당시의 모습을 보존해 놓았다. 영화 속 장면을 담은 사진과 전도연의 영화 속 의상도 볼 수 있다





밀양은 고풍스럽다. 사명대사 생가지를 비롯해 영남 유림의 대부인 김종직 선생의 생가와 후학을 양성했던 예림서원 등 유명한 스님과 대쪽 같은 선비들의 발자취가 곳곳에 남아 있다.



1, 2 임진왜란 때의 승병장 사명대사는 밀양 출신으로 그가 태어나고 자랐던 생가지에는 조선시대 사대부의 정갈한 기와집이 들어서 있다.

오래된 과거 속으로 떠나는 여행

유교 문화 유적지로 가장 유명한 곳은 경북 안동이다. 그러나 밀양은 안동 못지않게 유교문화 유적지와 명승지가 많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도 배출했다. 임진왜란 때의 승병장 사명대사, 조선 전기의 성리학자 김종직, 조선 초기 최초의 문형(文衡, 대제학)이었던 변계량(邊계량)이 바로 밀양 출신이다.

“불을 더 많이 때거라.”

초등학생 시절 읽었던 한국위인전집에서 사명대사(四溟堂, 1544~1610)의 이 한마디는 통쾌하고 재미있는 대목이었다. 국왕의 친서를 휴대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강화를 맺기 위해 일본을 방문했던 그가 목욕통에 들어가 있을 때 왜군이 그를 죽이려 불을 거세게 때자 했던 말이다.

올해는 사명대사가 입적한 지 꼭 40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래서일까? 그가 태어났다는 밀양 서쪽 끝 무안면 고라리의 사명대사 유적지를 찾아가는 동안 새삼스럽게 그와 관련된 이 일화가 떠올랐다.



입적 400주년, 사명대사의 발자취를 찾아

사명대사 생가지는 기와를 엮은 돌담이 에워싸고 있는 기와집이다. 대문 위에는 '송운대사 구택(松雲大使舊宅)'이란 현판이 걸려 있다. '송운'은 사명대사의 또 다른 호이다. 안쪽으로는 사랑채와 대사가 태어난 집이 자리하고 있다. 마당에는 산수유나무가 노란색 꽃을 수줍은 듯 터뜨리고 있었다. 생가지 바깥에는 사당이 위치하고 있다.

생가지를 나와 사명대사 기념관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충의문을 지나자 환하게 트인 중앙광장이 모습을 드러낸다. 광장 벽면에는 사명대사의 탄생과 성장, 입산과 승군 활동, 왜장과의 담판 등 그의 생애를 엿볼 수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기념관으로 들어서자 사명대사의 생애를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고, 각종 문헌과 금강저, 금강령을 비롯해 당시 승병들이 사용했던 칼, 화살, 염주, 승복, 나각 등이 전시돼 있다. 정보검색실에서는 사명대사에 관한 각종 자료도 찾아볼 수 있다. 기념관 뒤편으로는 대사의 동상이 서 있는 추모광장이 자리하고 있다. 유적지 인근 무안리에는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 맘을 홀린다는 표충비가 서 있다. 사명대사의 높은 뜻을 기리기 위해 영조 18년 세운 비석으로 지금도 가끔씩 구슬땀을 흘려 밀양의 3대 선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한편 단장면 재약산 자락에는 서산대사, 사명대사, 기허대사 등 3대 선사의 영정을 봉안한 표충서원이 있는 표충사(表忠寺)가 위치해 있다. 이곳 박물관에는 1177년에 제작돼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고려향로인 '표충사 청동함은향완'을 비롯해 사명대사의 가사와 장삼, 교지, 사령 깃발, 포로송환문서, 일본상륙행렬도 등이 전시돼 있다.

1, 2, 3 재약산 자락의 표충사는 원호대사가 산정에 올라 오색채운이 이는 것을 보고 터를 잡았다고 한다. 특히 이곳 박물관에는 가사와 장삼, 교지, 사령 깃발, 포로송환문서, 일본상륙행렬도 등 사명대사와 관련된 많은 유물이 전시돼 있다.



4 고려시대 길재의 학통을 이어받은 김종직의 생가 앞에는 고고한 선비의 기품이 서려 있는 그의 상반신 동상이 세워져 있다. 5 김종직을 사숙하던 후학들의 교육기관인 예림서원(禮林書院) 뜰에 산수유가 노란 꽃망울을 터뜨렸다.

큰 선비 태어나 학문 닦던 곳

부북면 제대리에는 고려시대 길재의 학통을 이은 김종직(1431~1492)의 생가가 자리한다. 깨끗한 선비, 김종직의 동상 뒤에 자리한 생가로 들어서면 6칸 맞배지붕의 목조 기와집이 나타난다. 고고한 선비의 기품을 닮은 듯 소박하면서도 기품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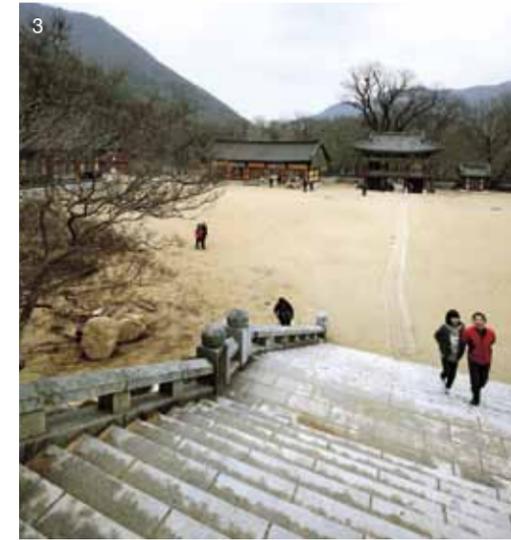
생가 인근에는 김종직을 사숙하던 후학들의 교육기관인 예림서원(禮林書院)이 위치해 있다. 명종 때인 1567년에 지어졌고 현종이 편액을 내린 사액서원으로 앞쪽에는 교육을 하는 공간이, 뒤쪽에는 제례를 지내는 장소가 있는 전형적인 서원 구조이다.

입구에는 2층 높이로 지은 독서루가 자리하고, 구영당과 육덕사가 좌우로 배치돼 있다. 안쪽으로는 유생들이 거처하며 학문을 닦던 돈선재와 직방재가 있고, 가장 안쪽의 장관각에는 김종직의 저서와 문집이 책판 형태로 보관돼 있다.

잔디 깔린 정원에는 향나무와 소나무가 싱그러운 초록빛을 내뿜으며, 계절감을 전하고 있다. 독서루 마루에 앉아 안뜰을 내려다보면 서책을 읽는 유생들의 낭랑한 목소리가 들려올 듯하다.

해 질 녘 삼문동과 내일동을 잇는 밀양교 인근으로 향했다. 강 건너편으로는 검은 실루엣을 드러낸 산과 나무들 가운데 조명을 받아 환하게 빛나는 영남루(嶺南樓)가 자리하고 있었다. 영남루는 조선시대 후기의 대표적인 목조 건물로 진주 축석루, 평양 부벽루와 함께 한국의 3대 명루에 속한다.

인적 드문 산책길을 따라올라 영남루 마루에 섰다. 고요히 흐르는 밀양강 너머로 도심의 불빛이 별처럼 예쁘게 다가왔다. 바람 소리 들릴 듯한 적막한 누각에서 바라보니 천장에 걸린 '영남제일루(嶺南第一樓)'란 글귀가 가히 과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나브로 밤이 찾아오자 도심에 하나 둘 불이 밝혀진다. 밀양강변 높은 곳에 자리한 영남루에 오르면 별들이 떨어져 내린 도심의 밤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그곳에 서면 물소리가 들릴 듯한 고요함에 저절로 깊은 사색에 빠져든다. 영남 최고의 누각은 여행자에게 아름다운 풍경과 그윽한 정취를 선사한다.



밀양의 맛 흑염소 불고기와 돼지국밥

경상도에 제대로 된 먹을거리가 없다는 말은 이제 옛 이야기인 듯하다. 밀양만 봐도 그렇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대표 장터음식인 돼지국밥을 비롯해 흑염소 불고기, 잉어찜, 고동국, 산채비빔밥 등 군침을 돌게 하는 먹을거리가 넘쳐난다. 여행자들이 더욱 행복해지는 이유이다.



1

1 밀양의 흑염소 불고기는 노린내가 전혀 나지 않는다. 쫄깃하고 고소한 특별함을 맛볼 수 있다. 2 흑염소 불고기를 먹은 후 입 안을 깔끔하게 해 주는 춘국수도 별미이다.

2



‘흑염소 불고기’. 양고기의 노린내를 맡아본 사람이라면 흑염소 불고기를 선택 선택하지 못할 것 같다. 그러나 단장면 표충사 인근의 식당들에서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다. 이곳 흑염소 불고기에서는 그저 구수한 냄새와 감칠맛만 나기 때문이다.

노린내 전혀 없는 흑염소 불고기

이곳 흑염소 불고기는 식당에서 직접 자연 방목하거나 인근에서 사들인 육질이 가장 좋은 만 1년생 흑염소를 이용하는데, 손으로 일일이 포를 뜬 후 냄새를 없애기 위해 간장과 설탕, 마늘, 참기름 등의 불고기 양념으로 잘 재워둔 고기로 요리를 한다.

불고기를 주문하면 염소 고기가 팽이버섯과 양송이, 양파, 파, 당근과 함께 나

온다. 불고기는 석쇠나 잘 달궈진 불판을 이용한다. 염소 고기는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많아 잘 익은 고기를 상추에 싸 먹으면 깔끔하면서도 구수한 맛이 입 안에 침을 한가득 고이게 한다.

밀반찬으로는 나오는 배추김치, 깻잎, 콩나물 무침, 고추 장아찌와 재약산에서 채취한 각종 산나물을 함께 먹으면 개운한 뒷맛을 느낄 수 있다. 가격은 2명이 먹을 수 있는 소(小)가 5만 원, 대(大)가 10만 원으로 조금 비싼 편이다.

서민들의 영양 식단, 돼지국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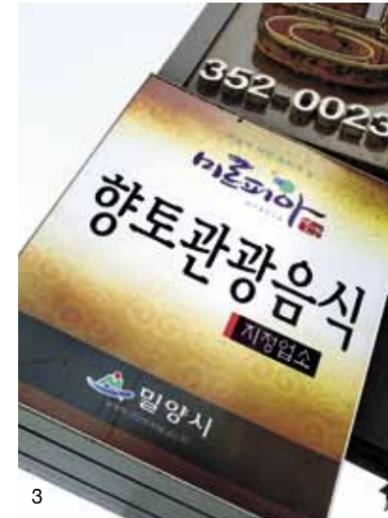
밀양을 대표하는 먹을거리는 단연 ‘돼지국밥’이다. 특히 무안면의 돼지국밥이 유명한데, 옛날 이곳 5일장에 물러들던 장사꾼들과 장을 보러 나온 주민들의 배를 한 그릇으로 든든하게 채워주는 특별하고 푸짐한 음식이었다.

무안면 장터에 돼지국밥이 등장한 것은 60여 년 전. 한 할아버지가 소뼈를 오랫동안 고아 낸 맑은 육수에 소금과 밀가루로 깨끗이 씻은 암돼지 고기를 올려 누린내를 없앤 국밥을 낸 것이 시작이었다. 밀양 돼지국밥은 특유의 개운하고 깊은맛과 푸짐하고 부드러운 고기 맛에 반한 장사꾼들을 따라 전국으로 퍼져 유명세를 타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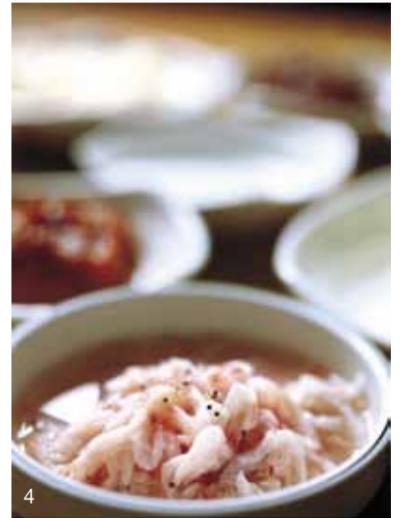
무안면 표충비각 인근의 돼지국밥 식당들은 ‘식육식당’이란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식당과 정육점을 함께 운영하는 곳으로 돼지국밥에 사용하는 질 좋은 고기를 바로 델 수 있다.

돼지국밥을 주문하면 돼지고기와 파가 푸짐하게 담긴 뚝배기가 나온다. 국물에 밥을 말아 배를 채우던 장터음식답게 찬은 잘 익은 배추김치와 깍두기, 풋고추와 깻 양파, 마늘 등으로 단출하다.

뚝배기에 소면을 넣고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한 후 숟가락 한가득 밥과 고기, 파를 올려 입속에 넣으면 부드럽게 씹히는 고기와 맑고 개운하면서도 구수한 국물 맛이 어우러진다. 여기에 잘 삭은 배추김치나 깍두기를 곁들이면 맛이 더욱 좋아진다. Y



3



4

3, 4, 5 밀양의 대표 음식은 ‘돼지국밥’이다. 무안면 표충비각 인근의 식육식당을 찾으면 밀양에서 가장 맛있는 돼지국밥을 먹을 수 있다. 부드러운 고기와 구수한 국물 맛이 일품이다.



5

INFORMATION



사진 / 밀양시청 제공

밀양은 남쪽은 창녕과 김해, 서쪽은 창녕, 북쪽은 경북 청도, 동쪽은 울산과 양산이 둘러싸고 있는 내륙 도시이다. 예전에는 교통이 불편했지만 KTX가 서울과 부산을 잇고, 대구부산고속도로가 지나면서 교통이 편리해져 여행하기가 무척 쉬워졌다.

>> 둘러볼 곳

밀양관아

조선시대 벼슬아치들이 모여 나라일을 처리하던 곳으로 당시에는 100여 칸에 달하는 큰 규모였다고 한다. 여러 차례 수리를 거쳐 조선 말기까지 남아 있었으나 일제강점기인 1927년 지금의 삼문동에 밀양군청을 지으면서 관아는 폐쇄 및 철거됐다. 밀양시는 지난 2003년부터 사업비 65억8천만 원을 투입해 밀양관아 복원작업을 진행해 오는 4월 준공할 예정이다. 공사가 완료되면 목조기와 팔작지붕에 정면 6칸, 측면 3칸 규모의 동헌(지방 수령 직무 공간)과 부속 건물인 매죽당(책방 및 부사 자제 공부방), 사랑방인 북별실, 내삼문 등이 옛 모습 그대로 공개돼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약산 사자평

밀양 동부 지역의 재약산(1천108m)은 해발고도 1천m 이상의 준봉들로 이루어진 '영남알프스'의 일부이자 밀양의 주산으로 산세가 수려해 '삼남금강(三南金剛)'이라고도 불린다. 표충사 남쪽 계곡을 따라 사자평으로 오르다 보면 높이 20m의 폭포 2개가 연이어 있는 층층폭포를 만난다. 8부 능선의 사자평은 드넓은 억새 평원으로, 가을이면 억새꽃이 반말해 구름 덮인 주변 산줄기를 배경으로 은빛 물결이 출렁인다.



사진 / 밀양시청 제공

가지산



사진 / 밀양시청 제공

해발고도 1천241m로 영남알프스의 봉우리 가운데 가장 높다. 밀양시를 관통하는 밀양강의 지류인 산내천(山內川)과 무적천(舞笛川)의 발원지로 남쪽의 천황산(1천189m)과의 사이인 산내면 시례에는 한여름에 얼음이 어는 얼음골이 위치한다. 정상 부근은 바위 능선이 많고 나무가 거의 없는 탁 트인 곳으로 가을이면 억새가 장관을 이루고, 눈 쌓인 겨울이면 아름다운 풍광을 담기 위해 사진가들이 모여드는 곳이기도 하다.

밀양 연극촌

연극 제작, 세미나, 워크숍 등 다양한 연극 운동을 전개해 나가기 위해 1999년 폐교된 초등학교에 설립된 곳으로 1만6천104㎡ 대지에는 숲의 극장, 스튜디오극장, 브레히트극장, 연극실험실, 우리동네극장, 대연습실, 숙소, 녹음실 등이 들어서 있다. 2001년부터 매년 여름 개최되는 '밀양어름공연예술축제'에는 젊은 연출가들이 다양한 작품을 무대에 올려 한국 연극의 활력소가 되고 있으며, 관광객들에게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



사진 / 밀양시청 제공

밀양 연극촌은 또 주말마다 연극 관련자는 물론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는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학생들의 체험 실습 교육, 교사 연수, 직장인 연수, 어린이 연극 캠프, 동호회 단합회, 연기자 연기 워크숍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연극 관람은 물론 배우들과 자연스럽게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무대제작소를 비롯한 의상실, 기획실, 녹음실, 연습실 등 연극 제작 과정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다. 밀양연극촌은 더 나은 공연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재 본관을 신축하고 있다. 7월까지 교육 연수 및 문화 체험이 중단되고, 주말 공연도 진행되지 않는다. www.stt1986.com, 055-355-2308



사진 / 밀양시청 제공

석골사, 석골폭포



사진 / 밀양시청 제공

신라말 비허선사(備虛禪師)가 창건한 사찰로 북쪽에는 운문산, 동쪽에는 가지산, 서쪽에는 억산이 연봉을 이루고 있고, 기암절벽과 계곡의 경관이 아름다운 곳이다. 관광객이 많지 않아 시원하고 경쾌한 물소리를 들으며 조용하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거나 여유롭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산내면 원서리에 위치한다.

기회송림

산외면 남기리 기회마을에 국도변을 따라 길게 늘어선 송림이다. 이 숲은 150여 년 전 남기리 기회마을 주민들이 계를 조직해 북천강의 범람을 막아 마을과 농토를 보호하기 위해 조성한 방수림이다. 숲은 폭 200m, 길이 1천500m로 아름다리 소나무 수천 그루가 있어 여름철이면 많은 행락객들이 찾아와 캠핑을 한다.



사진 / 밀양시청 제공

삼랑진 양수발전처

국내에서 두 번째로 건설된 양수발전소로 안태호와 주변 산봉우리들이 이루는 경관이 아름다워 관광객이 많이 찾는다. 지하발전소와 전력 홍보관을 견학할 수 있고, 저수지와 주변 공원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특히 매년 4월 초에는 발전소 진입로에서 안태호에 이르는 하늘을 가릴 듯 탐스러운 5km 벚꽃 터널이 장관을 이룬다.

발전소 견학은 한국서부발전(주) 홈페이지(www.iwest.co.kr)나 삼랑진발전처 홍보과(055-350-3286)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진 / 밀양시청 제공

수산제

김제의 벽골제, 제천의 의림지와 함께 우리나라 3대 농경문화유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삼한시대에 쌓은 저수지 제방과 수문이 남아 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수산제의 둘레가 728보라 기록돼 있고, '동국여지승람'에는 고려 원종, 충렬왕대의 장군 김방경이 독을 쌓아 일본을 정벌하기 위한 군량미를 공급했다고 전한다. 현재 수산제는 전문가가 아니면 흔적을 찾기 어렵다. 밀양시는 올해 이곳에 전망 데크를 설치해 관광객들이 수산제의 수문을 볼 수 있도록 하고, 화장실과 주차장, 복원 조감도 안내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 이후에는 선조들의 옛 농사법을 엿볼 수 있는 농경문화관을 건설할 계획이다.

>> 자연과 하나 되는 농촌 체험

평리녹색체험마을

밀양 북동부의 재약산과 향로산 줄기에 터를 잡고 있는 시골마을로 친환경농법으로 대추를 생산하고 있다. 이 마을은 노루, 사슴, 고라니, 멧돼지 등의 동물이 수시로 목격돼 생태계의 보고로 꼽힌다. 또 마을 앞을 흐르는 고사천은 밀양댐 바로 아래 있어 사계절 물이 맑으며, 쉬리와 꺾지, 버들치, 메기 등 1급수에 사는 어종과 수달을 볼 수 있다. 이곳에는 논메기·가재 잡기, 뗏목 타기, 야생화 관찰, 등산 등의 자연생태 체험 활동과 짚풀공예, 천연염색, 천연비누·아로마 향초 만들기 등의 공예 체험, 낚시 및 고추 따기, 감자·옥수수 수확, 산나물 채취 체험 등의 농산물 체험, 지게 지기, 연날리기, 굴렁쇠 굴리기 등의 전통 놀이 체험, 손두부 만들기, 대추찰떡치기, 옛 만들기 등의 전통 음식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체험마다 참가비는 5천 원이며, 민박 숙박비는 1인당 1만 원, 식사는 한 끼에 5천 원이다. 프로그램은 당일형과 1박 2일형이 있으며, 체험 신청은 홈페이지(www.pyungri.com)를 통해 할 수 있다. 055-353-5244



사진 / 밀양시청 제공



사진 / 밀양시청 제공

꽃새미마을

동심의 세계에 빠져볼 수 있는 농촌테마마을로 다양한 체험을 하며 자연과 하나가 될 수 있다. 단감 및 옥수수 따기, 고구마 캐기 등의 수확 체험과 된장, 장아찌, 막걸리, 손두부 등 전통 먹거리 만들기 체험이 가능하다. 농장 주변으로는 로즈메리, 세이지 등 다양한 종류의 허브가 지천이다. 허브 체험에 참가하면 마음에 드는 허브를 직접 찾아 허브 찜을 먹을 수 있다. 농장에는 비누와 양초 만들기 등 허브를 이용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다. 프로그램은 당일형과 숙박형이 있으며, 참가비는 당일형이 성인 2만 원, 어린이 1만5천 원이며, 숙박형은 성인 3만 원, 어린이 2만5천 원이다. 민박 숙박비는 1인당 1만 원이다. 올해 4월 5일부터 5월 말까지는 허브와 야생화 100종류를 만날 수 있는 축제가 펼쳐진다. http://kkotsaemi.go2vil.org, 011-841-1761

>> 축제

밀양 아리랑 대축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시민 화합을 위해 매년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4일간 진행되는 50여 년 역사의 향토 축제이다. 축제 기간에는 길놀이, 아리랑 구수 선발대회, 출향인 만남의 장, 민속 연날리기 대회, 밀양아리랑 가요제, 밀양강 아리랑 노젓기 대회, 시민화합 대동 한마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올해 축제는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개최된다. 055-353-3550



사진 / 밀양시청 제공

밀양아리랑 마라톤대회

밀양 공설운동장에서 출발해 5km, 10km, 하프(21.098km) 등 코스별로 개최되는 마라톤대회로 2003년부터 매년 개최해오고 있다. 공설운동장을 출발해 밀양 시내를 통과하며 봄의 길목인 2월의 햇살과 공기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대회로 지난 2월에 열린 올해 대회에는 1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참가했다. http://miryangmarathon.kr, 055-359-6030

교통 정보

자동차로 여행할 경우 서울에서는 경부고속도로-영동고속도로-중부내륙고속도로-밀양IC를 이용하고, 전라도에서는 남해고속도로-중부내륙고속도로-밀양IC를 이용한다. 서울에서 밀양까지의 거리는 349.8km로 4시간 30분 정도 걸리며, 통행료는 1만8천100원이다. KTX가 서울과 밀양을 1일 하행선 21회, 상행선 22회 운행하며, 소요 시간은 2시간 17분이다. 새마을호는 3시간 56분(1일 14회), 무궁화호는 4시간 40분(1일 32회)이 걸린다. 밀양의 관광지를 돌아보기 위해서는 자동차가 가장 좋다.

여행 문의

밀양시청 문화관광과 055-359-5641~3



사진 / 밀양시청 제공



역사와 공릉의 만남, 밀양시립박물관

밀양시립박물관은 낙동강 유역의 문화·역사 유물,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발자취와 공릉이 같은 건물 내에 있는 독특한 공간이다. 역사와 민속, 유학, 서화 등을 통해 선조들의 삶을 엿보고, 화석전시관에서는 훨씬 더 먼 과거로 시간여행을 떠날 수 있다.

밀양시립박물관은 1974년 개관한 밀양군립박물관을 이진해 2008년 새로 문을 연 최신식 시설의 박물관이다. 특이한 점은 밀양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조명하는 시립박물관과 밀양인들의 독립운동 모습을 볼 수 있는 독립운동기념관, 각종 화석을 전시하고 있는 화석전시관 등 서로 이질적인 전시관들이 같은 건물에 있다는 것이다.

1층의 시립박물관 역사실에는 약 2만 년 전 구석기의 고례리 유적부터 변진 24국 중 하나로 강력한 세력을 형성했던 미리미 동국시대 유물, 삼국시대 토기, 고려청자, 조선백자 등이 유리진열대에 정갈하게 전시돼 있다. 특히 밀양의 전통 민속놀이인 백중놀이 전시장과 삼한시대 농경문화 유적인 수산제를 형상화한 전시 통로, 밀양아리랑 관련 동영상, 시명대사의 친필 등은 흥미로운 볼거리이다. 2층 유학·서화실은 조선 전기



의 성리학자이자 영남학파의 종조인 김증직과 조선 초기 최초의 문형(文衡, 대제학)이었던 변계량 등 밀양 출신 유학자들의 문헌을 접할 수 있는 곳이다. 특히 내부를 훑히 들여다볼 수 있도록 투명한 유리로 지은 전시형 수장고인 목판실에는 점필재집, 성호집 등 총 39종 3천845장의 목판이 전시돼 있다. 목판실 옆으로는 목판인쇄를 직접 해볼 수 있는 탁본체험실이 자리하고 있다. 또 서화실에서는 단원 김홍도의 선유도를 비롯해 장승업의 화조도와 송학도를 볼 수 있다.

유학·서화실 관람을 마치고 나오면 전시장은 화석전시실로 이어진다. 타임캡슐 모양의 공간을 통과하면 공룡 화석 발굴 현장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온다. 마케팅 화석 연구가들이지만 그들이 화석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엿볼 수 있다. 한쪽으로는 삼엽충, 어류, 양서류, 양치식물 등 고생대의 각종 화석이 전시돼 있다. 1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으로 이동하면 허공에 익룡들의 골격이 매달려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1층에는 각종 공룡들의 전신 골격이 전시돼 있다. 조그만 화석은 자세히 볼 수 있도록 확대경을 설치했고, 컴퓨터를 통해 화석 관련 정보도 검색해볼 수 있다.



독립운동기념관은 1층의 시립박물관 전시실 옆에 위치해 있다. 조선 의용대와 조선의열단의 활동을 담은 사진과 각종 자료들이 전시돼 있고, 밀양 출신 최수봉 열사의 밀양 경찰서 폭탄 투척 모습과 밀양의 3.1만세운동 모습은 모형으로 재현해 놓았다.

한편 1층 기획전시실에서는 조선 후기 화가들의 그림과 민화, 칼, 용잠, 교지, 버루와 붓 등 다양한 옛 유물들을 기증받아 특별전을 열고 있다. 전시 기간은 10월 24일까지이다.

관람 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매주 월요일, 1월 1일, 추석 및 설날 당일 휴관)
관람료 어른 1천 원, 학생 700원, 어린이(12세 이하) 500원
문의 http://museum.miryang.go.kr, 055-354-3294

